“종교 넘어 인간의 고통 그린 루오…한국인 ‘한’ 떠오르기도”

이다도시 숙명여대 교수, ‘루오’ 전 관련 ‘뮤지엄 오디세이’ 강의
“주입식 아닌 자유로운 그림 관람 아이들 감수성 키우는 데 그만”
‘미제레레’·‘숲’ 가장 인상적…18일 방송인 서경석 두번째 강연

프랑스 출신 방송인으로 유명한 이다도시 숙명여대 교수가 지난 11일 강연차 루오전이 열리고 있는 전남도립미술관을 찾았다.

프랑스 출신 방송인 이다도시 숙명여대 프랑스언어문화학과 교수는 한국에 산 지 올해로 32년째다. 비즈니스를 전공한 대학원 시절 한국에 첫발을 내딛었으니, 이제 한국에서 산 세월이 프랑스에서 산 기간보다 길다.

시간이 날 때면 미술관을 찾고, 작품 컬렉션도 하고 있다는 그가 프랑스 출신의 세계적인 거장 조르주 루오 전시(2023년 1월29일까지) 관련 강의 ‘뮤지엄 오디세이’를 위해 지난 11일 전남도립미술관을 찾았다.

이다도시는 자기의 인생 속에 작품의 테마가 담겨 있는 루오의 삶과 그의 대표작들을 소개하며 강의를 진행했다. TV에서처럼 밝은 모습과 친근함이 인상적인 그는 강연 후 시종일관 유쾌하게 인터뷰에 응했다.

지난 2009년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열렸던 루오전에도 다녀왔던 그는 이번 전시 주제가 마음에 와 닿는다며 이야기를 풀어나갔다.

“당시 전시 주제가 ‘신성과 세속’이었고, 이번 전시의 주제는 ‘인간의 고귀함을 지킨 화가’입니다. 루오의 작품과 가장 어울리는 제목이라고 생각해요. 흔히 그를 20세기 최고의 종교화가라고 말하는데, 종교화를 넘어 그는 인간에 대해서, 그 감정과 고통에 대해서 그린 작가입니다. 루오 작품을 볼 때면 한국인의 ‘한’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는 전시작 중 인상적인 작품으로 ‘미제레레’와 ‘자화상’, 스테인드글라스 작품 ‘숲’과 도자기를 꼽았다.

“스테인드글라스와 도자기는 프랑스에서도 제가 보지 못했던 작품이예요. 책에서나 접했던 작품을 직접 보니 정말 행복했습니다. 두꺼운 선으로 대변되는 루오의 화풍을 느끼게 해주는 스테인드글라스와 아주 섬세하고 세밀하게 묘사된 ‘자화상’이 인상적입니다. 또 광대, 창녀 등 힘든 자들의 고통과 마음을 헤아리고, 그들의 심정을 표현한 작품도 좋았어요. ‘미레제레’ 중 ‘서로 사랑하면 얼마나 좋을까’ 등의 작품을 볼 땐 ‘맞아 맞아’ 하며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군요. 지금도 전쟁은 일어나고 그 아픔은 계속되고 있으니까요. 루오를 비롯해 당시의 사람들에게 세계 대전은 엄청난 충격이었을 거예요. 루오는 그림을 통해 그 고통과 연민을 풀어냈고, 그 작품들을 그 시대의 증언으로 우리에게 많은 이야기를 건네줍니다. 희망이나 환희와 달리 죽음과 고통을 표현하는 건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는 인간의 감정을 소중히 다루고 완벽하게 표현했습니다.”

서경석

좋아하는 작품 앞에서 사진 촬영 포즈를 취한 그는 “물감을 조각처럼 두껍게 발라 질감, 볼륨감을 살린 작품들, 밝은 색깔과 화려한 색채의 작품들이 마음에 든다”고 말했다.

이다도시는 1989년 한국 회사에서 실습을 하기 위해 방한했다. 이후 EBS 교육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시청자들을 만났고 공중파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방송인으로 많은 사랑을 받았다. 현재 숙명여대 교수인 그는 다문화 가정, 사회 통합, 국가 이미지 제고, 여성 문제, 교육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활동을 펼치고 있다.

그는 교육에도 관심이 많다. 한국 생활 초창기에 TV에도 출연했던 아이들은 성장해 큰 아이는 한국 군대를 다녀온 후 전공인 재료공학을 살려 취업할 예정이며 둘째는 호텔 비즈니스를 전공중이다.

그는 그림을 감상하고 전시장을 찾는 일이야 말로 아이들의 예술적 감수성을 키워주는 좋은 체험이라고 말했다.

“프랑스에서는 유치원 때부터 미술교육을 시작해요. 어릴 때부터 그림을 접하는 셈이죠. 마치 시험 보듯이 그림을 보는 그런 분위기 말고, 그냥 자유롭게 바라보면서 ‘발견’하게 하는 거죠. 이 스타일 저 스타일 다채로운 그림을 통해서 아이들은 다양한 것들을 봅니다. 어린이들은 어른과 다른 시선으로 봐요. 꼬마들은 어른이라면 신경 쓰지 않을 구석의 작은 디테일에도 마음을 주구요. 그림을 보면서 정보를 알려주고 설명하는 대신 무엇을 느끼는지 자꾸 질문을 던지며 아이들이 스스로 생각하도록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때 다양성은 참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의 부모님들 가운데는 아이와 그림을 보며 강의하고 설명하고, 또 기억했는지 확인하기도 하더군요. 그렇게 하면 아이들이 그림에 관심을 갖기 어렵죠.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압력을 가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그는 프랑스인 남편과 함께 3년여 전부터 프랑스 작가 폴 자쿨레의 판화작품을 수집중이다. 특히 ‘한국’을 소재로 그린 작품을 한 점 한 점 모으고 있는데 나중에, 컬렉션을 선보이면 좋겠다는 생각도 한다. 또 젊은 한국 작가 장 콸(Jang Koal)의 작품도 관심이 많다. 그는 광주에서 한국생활을 시작했던 남편 덕에 보성, 해남 지역의 민박집에 머물며 ‘전라도’를 재발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8일 오후 3시 열리는 ‘뮤지엄 오디세이’ 두번째 강의에는 개그맨이자 방송인 서경석이 강사로 참여한다. 문화재 배틀쇼 ‘천상의 컬렉션’을 진행하기도 했던 그는 루오의 삶과 작품을 재미있는 스토리 텔링을 통해 들려줄 예정이다.

/글·사진=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그윽한 묵향으로 번지다

학정연우서회 회원전, 15~21일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

‘은은한 묵향의 세계로.’

제 46회 학정연우서회(회장 김선보) 회원전이 15일부터 21일까지 광주시립미술관 금남로분관에서 열린다. 초대 일시 15일 오후 5시.

학정연우회는 한국 서예계의 큰 산 고(故) 학정(鶴亭) 이돈흥 선생(1947~2020)의 가름침을 받았던 제자들의 모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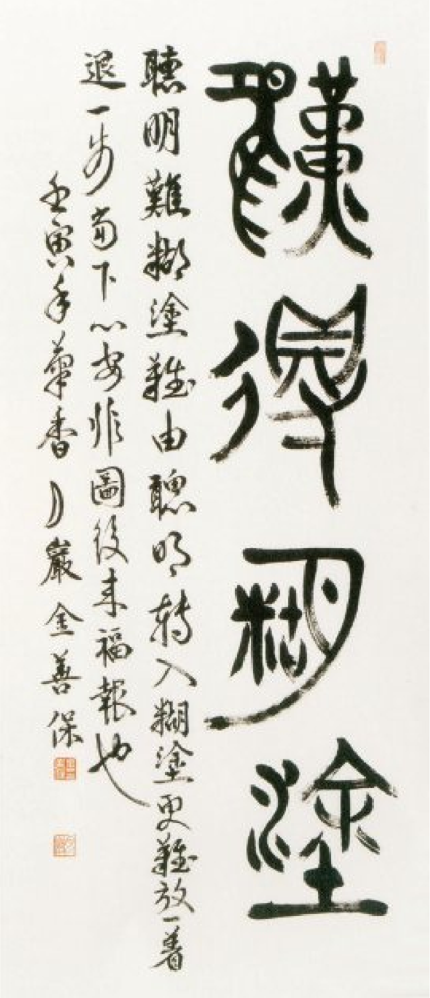
학정서예연구원은 1975년 호남동 성당 내에 문을 열었고, 개원 한달 후 학정서예연구원 연우회가 발족했다. 1977년 첫 회원전을 개최한 이후 매년 전시회를 열어왔으며 초중고생 서예공모전도 꾸준히 개최했다. 특히 2015년부터는 세계청소년 서예대전으로 행사를 확장, 서예 인구 저변 확대에 힘써왔다.

이번 전시에는 강수진·고동석·김선우·박미경·박원해·이동진·이문석·홍동의·홍순자 등 모두 74명이 참여해 다양한 서체의 작품을 선보인다.

참가자들은 이백, 두보, 만해 한용운, 윤동주, 노신, 임재 등의 시와 시조, ‘명심보감’, ‘금강경’, ‘중용’, ‘채근담’, ‘도덕경’ 등 선조들의 지혜가 담긴 다양한 서적에서 발췌한 글을 선보인다.

이번 전시에서는 학정 선생의 작품 ‘매월당 김시습의 춘사(春思)’도 만날 수 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김선보 작 ‘난득호도’

주변을 돌아보는 시간 ‘오늘’

박환희 초대전, 25일까지 양림동 갤러리 포도나무

늘 똑같은 듯한 일상이지만 ‘빛나는 순간’은 언제나 있다. 박환희 작가는 아이들과 자연을 되도록 많이 접하며 관찰하고, 충분히 느끼며, 일상의 사소한 것들에서 의미를 찾아 그림으로 진솔하게 표현해왔다.

한해를 마무리하는 요즘, 일상과 주변을 한번쯤 돌아보게 되는 시간에 어울리는 전시회가 찾아왔다.

박환희 작가 초대전이 오는 25일까지 광주시 남구 양림동 갤러리 포도나무(백서로 79-1)에서 열린다. ‘오늘’을 주제로 열리는 전시에서는 일상의 단편들이 자유롭고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아이들의 놀이처럼 펼쳐진다.

이번 전시에서는 가족과 함께 떠난 여행에서 보고 느낀 것들을 소재로 한 작품과 일상에서 자신을 자극하는 순간들을 담은 그림을 선보인다. 여행중 만난 식물 이미지, 아이가 어릴 때 만든 사물, 낙서의 흔적 등이 모두 그림의 소재가 됐다.

박 작가는 파슨스 디자인 학교에서 순수미술을, 뉴욕대에서 판화를 전공했으며 지금까지 6차례 개인전과 2차례 가족전을 열었다.

이번 전시에 대해 정현주 큐레이터는 “가족과의 삶은 특별하지도 가장 아름답지도 않다. 혹은 덤덤하고 습습하게 흘러간다. 그러나 박환희에게 맞닿은 ‘오늘’은 그의 시적 언어에 포착돼 무심하게 천진한 형상과 패턴과 색의 단편으로 표출된다”고 말한다. 월·화요일 휴관. 문의 062-655-7900.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오늘’

익숙했던 것들에 대한 새로운 시각

이성자 작가, 동시집 ‘바빠 바이러스’ 펴내

모두 바쁘게 살아가는 세상이다. 저마다 자신들의 삶에 얽매이다 보니 다른 사람을 생각하거나 다른 일에 관심을 기울일 수 없을 정도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잠시 멈추고 주위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리 모두 자연과 손잡고 오순도순 살아가요. 서로가 서로에게 든든한 지팡이가 되어 주어요.”

동시와 동화를 통해 어린이들에게 맑은 동심과 희망을 선물해온 영광 출신 이성자 동화작가가 동시집 ‘바빠 바이러스’(고래책방)를 펴냈다.

작품은 우리 주변의 보잘 것 없는 대상에 대해 따뜻한 시선을 주는 시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는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당연하게 생각하고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것들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본 작품도 있다.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자연에서 살던 시간을/ 그릇 속에 잡아 두고/ 시계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어// 바빠바빠바빠바빠바빠…/ 시계가 달리는 소리/ 하루빨리 자연으로/ 돌아가고 싶은 게지// 그런데 이게 뭔 일?/ 어느 날부터 아빠 엄마가/ 바빠 바이러스에 걸리고 말았어// 눈만 뜨면 바빠바빠 하거든/ 벌을 받을지도 몰라/ 마음대로 자연을 잡아 가둔 죄”

표제시 ‘바빠 바이러스’는 현대인들의 일상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눈만 뜨면 바빠바빠” 하며 ‘자연’을 거슬리며 살아가는 일상을 부드럽게 나무란다. 작가는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무서운 것은 어쩌면 바빠 바이러스인지 모른다’는 주제의식을 전달한다.

자연을 거스르는 삶은 바로 동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삶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미가 내포돼 있다.

해설을 쓴 이준관 아동문학가는 “이성자 시인의 시를 읽으면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힘없고 약한 것들에 대한 사랑을 배우고,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배웁니다. 할머니와 지팡이를 통해 남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마음도 배웁니다”라고 평한다.

한편 이성자 동화작가는 명지대 문예창작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동아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했다. 방정환문학상, 한국아동문학상 등을 수상했으며 지금까지 동시집 ‘기특한 생각’, ‘엉덩이에 뿔났다’ 등과 동화집 ‘펭귄 날다!’, ‘두근두근 묵정밭’ 등을 펴냈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전남대 호남학연구원 콜로키움…16일 인문대 김남주 기념홀

5·18민주화운동을 공감-감정론의 차원에서 분석한 연구를 공유하는 콜로키움이 열린다.

전남대 호남학연구원(원장 정명중 교수)은 오는 16일 오후 4시 인문대 김남주 기념홀에서 ‘공감장과 사회적 감정의 동학’을 주제로 콜로키움을 연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공감-감정론의 차원에서 분석한 사례 연구를 토대로 공감작용에 의한 사회적 감정의 동학에 대해서 함께 살펴본다. 이날 콜로키움에서는 이영재 교수(한양대 제3섹터연구소)를 초청 ‘공감장’(共感場)’ 연구에 대한 이론적 개념화를 둘러싼 여러 난제를 토론한다.

최근 새로운 사회분석의 방법론으로 부상한 ‘공감장’(共感場) 연구에 대한 내용과 아울러 공감장 연구의 사회 실천적 가능성 및 비전에 대해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